

2030청년들, 성평등 문화 만든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청년동아리 지원
액툼·히트곡제작기 등 30개 팀
노래가사속 불평등·일상 혐오 발언
유튜브 등 SNS 통해 분석·대안 제시



동아리 '슬기로운 월경생활'은 월경 용품에 대해 공부하고 면 월경대를 만들어보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놀자 오빠가 무리할게... 아름다운 여자는 대접 받아야 해” (지코 'Boys and girls' 가사 중)
“왜 여자들은 그리 명품에 환장해?” (빈지노 'Nike shoes' 가사 중)
위의 노래들은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한 가요들이다. 이들 노래 가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여성을 왜곡하고 성적 대상화하고 있으며 고정관념과 편견을 재생산 한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동아리 '히트곡제작기'는 이를 지적하며 'K-POP 젠더 점검표'를 만들어 노래 가사의 어떤 부분이 불평등한 요소인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 불평등 요소를 바로잡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2030세대 청년들이 주축이 돼 '성평등'을 추구하고 확산하는 동아리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청년 성평등, 세상을 바꾸다'를 주제로 한 2030청년동아리 지원 사업을 진행, 총 30개 팀이 지난 6월부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서 활동 중이다. 우리말 평등사전을 만드는 '꿈꾸는 에페', 맞벌이 가정의 가사분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동선이몽', 일상 속 혐오발언, 차별어휘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말말공작소', 노래가사 속 젠더불평등을 파헤치는 '히트곡제작기', 우리가족 가사분담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나누다' 등 총 30개 팀이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성평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된 팀은 'ACT_WOM(액툼)'이다. 여성주의 그룹으로 광주를 비롯해 전남·북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페미니즘 행사를 열고 있는 이들은 지난 23일 '여성에게 운동장을'이라는 제목의 주짓수 강좌를 열었다. 이날 주짓수와 호신, 성범죄에 대해 배우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선보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여성에게 운동장을' 강좌는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종목을 찾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2030청년동아리 지원 사업을 진행, 'B코노미' 등 총 30개 팀이 활동 중이다.

는 9월 26일에는 '여성, 화두를 던지다'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며, 현재 강연자를 모집 중이다.

광주지역 비혼 여성들로 구성된 공동체 '비컴트루' 소속 경제 프로젝트 팀인 'B코노미'도 이색적인 활동을 펼친다. 비혼 여성의 삶을 위한 주거 마련 프로젝트 '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은 기존 가정과는 다른 비혼 가정만의 주거 환경을 구제화하는 워크숍(9월26일)을 준비했다.

또, 생활 속 성차별적 어휘의 속 뜻을 살펴보고 대체어를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말말공작소'는 매주 인스타그램에 한 단어씩 업로드 하고 있다. 동물 말, 공작, 소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웹툰 형식으로 '양성평등', '남자/여자답다', '김어사', '유모차', '그/그녀', '주부', '자궁' 등의 단어를 설명한다.

'섹슈얼리티' 팀은 청소년들이 성평등과 성인식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아리다. 이들은 '웃차림에 대한 성편견', '양성평등/성평등'을 주제로 카드뉴스를 만들었으며, 남자라서, 또는 여자라서 경험했던 차별이나 고민들을 모아 영상으로 만든 '성차별? 웃기지말라'도 유튜브에서 선보인다.

이밖에도 여성,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월경 용품에 대해 공부하고, 면 월경대를 만드는 워크숍을 진행 중인 '슬기로운 월경생활', 5·18 여성시민군의 서사를 다루고 있는 동아리 'MAYBE', 전국에서 발행되는 웹자보 중 성평등 웹자보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 '평사원' 팀 등이 다양한 활동으로 성평등을 말한다.

한편,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오는 11월 30개 팀의 활동내용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한다. 심사위원 평가와 동아리 상호 심사를 통해 총 15개 팀을 선정하며, 1등에게는 광주시장상과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소설을 쓴다는 건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반이다”

이기호 작가 '누가 봐도 연애소설' 펴내

재기발랄한 이야기꾼 소설가 이기호(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연애소설 '누가 봐도 연애소설'(위즈덤 하우스)을 펴냈다.

제목부터 눈길을 끄는 이번 작품집은 연애를 다룬 30편 소설이 수록돼 있다. 소설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작가의 말이다.

“세상 모든 소설은 다 연애소설이라고 하던데, 나에게 그건 '연애'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힌 말이 라기보다 '소설'을 쓰는 마음에 대한 가르침으로 들린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이끼는 마음이 절반이니까.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소설을 쓴다는 사람을 본 적 없거니와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야기를 짓는다는 사람도 만나본 적 없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지극히 평범하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캐릭터들이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어딘가 아프다. 암에 걸렸거나 애인에게 차였거나 시험에 떨어졌다. 더러는 삶이 조라하거나 이혼의 상처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야기는 탈춤하거나 가슴 시린 연애 소설은 아니다. 그보다는 무엇인가 모자란, 결핍의 인물들이 자신보다 더 못한 처지의 사람들을 생각한다라는 점이다.

단편 '뭘 잘 모르는 남자'의 주인공은 어느 날 극



단적 선택을 결심한다. 그러나 몸을 아래로 던지려는 순간, 그는 오히려 타인을 생각한다.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살피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남자의 차를 발견한다. 주인공은 흑여자를 망가뜨릴까봐 차마 결

심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짧은 이야기 30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은 대체로 힘드고 고달프다. 여유가 없고 더러는 자기 몸 하나 건사할 수도 없지만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다. 누가 봐도 별 불일 없지는 않지만 사람들이지나 그러나 사랑만큼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법이다.

작가는 “어쩌다 보니 짧은 소설만 벌써 세 권째다. 5년째 한 달에 두세 편씩 꼬박꼬박 짧은 소설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때면 무슨 백일장을 치르는 느낌이다. 백일장은 쓴 사람 이름을 가린 채 오직 글로만 평가를 받는 법. 그 마음으로 계속 근육을 단련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1999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작가는 소설집 '최순덕 성령충만기',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와 장편 '사과는 잘해요' 등을 펴냈다. 동인문학상, 이효석문학상, 김승옥문학상, 황순원문학상 등을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행사 홍보 '전통 통신사'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전통문화예술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영상으로 담아 줄 2020년 '전통 통신사'를 모집한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전통 통신사는 조선시대 외교 사절처럼 전통문화관 행사를 온라인으로 널리 전하는 홍보사절 역할을 한다.

'전통 통신사'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기획회의를 거쳐 영상 기획방향 및 콘티를 구성해 전통문화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한다. 취재한 영상은 유튜브 '광주문화재단TV'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대상은 전통문화예술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시민으로 모집인원은 1명이다. 전통문화예술 이해도와 관심도, 컴퓨터 활용능력 및 영상촬영 및 편집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선정된 통신사에게는 소정의 활동비 지급 등 혜택을 제공한다.

접수는 오는 9월 7일까지 광주문화재단 및 전통문화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gtcc001@naver.com)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850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여성영화제 단편 영화 다음달 4일까지 공모

경쟁부문 도입, 여성감독 지원

광주여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재희)가 11회 광주여성영화제를 맞아 첫 단편 영화 공모를 진행한다. 그동안 비경쟁 초청으로만 진행되었던 단편부문에 일부 경쟁부문을 도입, 이를 통해 여성감독들을 지원하고 여성서사 영화제작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광주여성영화제는 2010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11월, '여성의 눈으로 보는 세상, 모두를 위한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여성영화제를 개최, 여성 영화를 중심으로 다양성 영화들을 소개해왔다. 이번

공모는 앞으로 더 많은 여성서사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공모기간은 오는 9월 4일까지다. 장르 제한은 없으며, 2019년 12월 이후 완성된 40분 이내 작품으로 여성 서사를 다루면 된다.

누구나 출품 가능하며, 비슷한 여성 서사와 작품 수준일 경우에는 여성 감독과 지역 감독을 우대한다. 선정작은 9월 25일에 발표하며 11회 광주여성영화제 기간에 상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여성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515-656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남여류문학회 '이 그리움' 28호 출간

전남여류문학회(회장 정혜진)가 발행하는 기관지 '이 그리움'(한림)제 28호가 출간됐다.

이번 호에는 '여성 특집' 외에도 시, 동시, 소설, 수필, 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의 작품이 수록됐다. 먼저 '여성특집'으로는 지난 2019년 작곡한 이형자 시인을 조명했다.

김은수 문인은 '꽃처럼 강물처럼 입고의 삶을 엮어간 이형자 시인'이라는 주제의 글에서 '향상' 말이 없고 조용한 성품과 너그러움을 내면에 채워 달

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이형자 시인의 문학적 삶은 시와 더불어 꽃처럼 강물처럼 순수함으로 다가선다"고 평했다.

회원들의 작품으로는 강금아·임춘임·조선희의 시인 등의 시와, 고유자·민금순·정혜진 시인 등의 동시, 김용매·심경숙 작가의 소설 등이 실렸다. 아울러 제27호 연간집 출판기념회 사진과 시화전, 2020년 제27회 어린이 효행글짓기대회 수상 작품(산문 대상 아산초 김아민) 등이 수록됐다.



정혜진 회장은 “올해는 1월부터 시작된 국가적·세계적 재앙으로 들이닥친 코로나 19로 인해 사람들은 소소한 자유와 행복까지도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바쁜 생활로 인해 미뤄왔던 습작을 차분하게 이어가면서 자신만의 시간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얼마든지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h3>대연건설</h3> <p>동구 제봉로 190번길 7-1(대인동) 건설업·설비·토목·공작·수도·하수도</p> <p>☎ 062)236-1510, 010-2630-4820</p>	<h3>새서림 떡방앗간</h3> <p>북구 임동 서림초등학교 정문 참기름, 고추방아, 떡주문일체</p> <p>☎ 062)526-4629, 010-5474-4629</p>	<h3>광호익스프레스</h3> <p>북구 자산로5(신안동) 포장이사/일반이사/사무실이전/이사정보관</p> <p>☎ 062)522-1414, 010-3605-1445</p>	<h3>보광세탁소</h3> <p>동구 자산1동 동명로73-2(구 농장다리앞) 각종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p> <p>☎ 062)227-6815, 010-6681-5412</p>
<h3>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h3>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및배달가능 직접전화및배달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p> <p>☎ 062)526-5475, 010-8621-5959</p>	<h3>명품웃수선전문점</h3> <p>나주시 중앙로63(나주교회건너편) 남녀의류수선, 각종명품웃수선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 친절 신용 본위</p> <p>☎ 010-2474-1457</p>	<h3>인철(仁喆)익스프레스</h3>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p> <p>☎ 062)572-2323, 010-9509-4422</p>	<h3>일번식당</h3> <p>나주시 영산포로284(구 영산포역도로변) 축염소탕, 뚝배기오리탕, 추어탕, 소갈비살 순두부찌개, 뚝배기불고기, 불고기비빔밥, 삼계탕 각종 모임 환영</p> <p>☎ 061)335-1110, 010-8543-9617</p>
<h3>동양철학원</h3>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p> <p>☎ 062)224-7687, 010-2611-7687</p>	<h3>약초당건강원</h3> <p>동구 산수동 557-33(산수시장동) 인삼·별꽃·홍삼·생약초즙·봉어즙·장어즙 땀발증·취침·포도즙 각종고춧가루</p> <p>☎ 062)224-9559, 010-3617-9779</p>	<h3>비비가</h3> <p>동구 대인동 영무파라드2차 1층 “완벽한 한그릇 비빔밥” 비빔밥 & 해산물 비빔밥전문가중재사비빔밥, 돌솥비빔밥, 연어조림, 화이트</p> <p>☎ 062)229-1008, 010-8572-0999</p>	<h3>어주민물장어탕</h3> <p>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4로82번길4-7 민물장어탕·민물장어구이 포장가능합니다</p> <p>☎ 061)285-1255, 010-8620-8171</p>
<h3>고전방</h3>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h3>우리식당</h3> <p>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p> <p>☎ 062)381-0066, 010-3085-0140</p>	<h3>신신예술의집</h3>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h3>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h3> <p>북구 북문대로 35(운암동) 상가·아파트·주택·토지·각종부동산매매상담 고객만족! 책임중개!</p> <p>☎ 062)225-3303, 010-2651-6409</p>
<h3>the 사라헤어</h3> <p>북구 북문대로 159번길 39 (운암동 일신아파트 2차상가 1층) 컷, 염색, 일반편, 매직, 셋팅, 매직셋팅, 크리닉</p> <p>☎ 062)522-2380, 010-8200-9182</p>	<h3>명품크리닝 전문점</h3> <p>서구 치평동 275-22(우리들병원옆) 명품스키즈·운동화·가방·캐피트 염색, 복원·수선업체 주인 직접 명품세탁, 유모차 전용 세탁소 오픈 (비대면 수거배달, 문자접수)</p> <p>☎ 010-6559-6700</p>	<h3>초대화랑</h3>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h3>박당화랑</h3>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한승 ☎ 062)222-6866</p>